

전남도, 스마트 음식관광 시대 개막

행안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선정
도내 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대면 예약·결제 등 사업 확대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맛의 고장남도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하는 '스마트 음식관광' 서비스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음식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 데이터 기업을 매칭해 데이터 구축·가공 등 예산을 지원하고, 완료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도내 음식점 3천 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954개소와 시군 추천 3천 501개소 중 99㎡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다. 다만 위생점검 등

로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제외한다.

사업은 주로 메뉴와 가격, 내·외부 사진, 주변 관광지 정보와 위치, 휴일, 영업 시간 등 음식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된다. 구축된 자료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관광객, 소비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내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다.

전라남도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비대면 예약·주문·결제 서비스까지 가능토록 사업을 확대해 스마트 음식관광 시대를 열어가길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은 이동하면서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골라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

당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한층 안전하면서도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약과 동시에 결제까지 이뤄지므로 음식점은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소위 '식당 노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김병주전라남도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전남만의 차별화된 음식관광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음식관광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광주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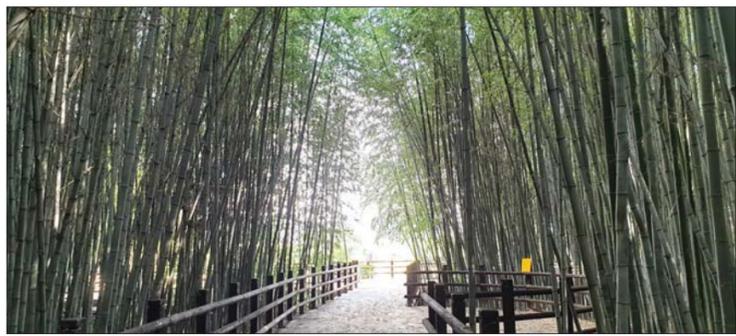
광산경제백신회의 소상공인에 냉방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를 지원한다.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 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산경제 활력 특강 등 9개의 '광산백신 시리즈' 사업을 해온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시리즈 10탄으로 냉방비 지원사업을 기획한 것.

냉방비는 일반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20kw이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계약을 한 등록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고, 업소당 최고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담양군은 대전면 태목리에 자리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교육청 학교 감염예방 조치 연장

20일까지 밀집도 반영 등교수업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일부 완화

경북도교육청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내 감염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유·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등교수업 운영을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르면 유치원은 돌봄 포함 급당 15명 이내로 등원하고,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유지,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되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경북교육청 전경

한다.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일부 완화해 등교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른 긴급 돌봄도 동일하게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초·중학생을 위한 지원도 중단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부산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사업 본격화

상징물·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부산시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은 총 90억원(국비 25억원, 시비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에 착공에 들어갔다.

계획안 1단계는 시네마 상징물·거리 조성사업으로, ▲야외 공간에 기념 열주를 활용한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재현하는 '한국 영화 100년사' ▲비프힐 유리면을 활용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는 '영화 속 스크린 체험' ▲대형 LED 스크린에 3D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오늘의 주인공' 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다.

2단계는 융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더블콘 4개 층(4825㎡)을 리모델링해 ▲미디어 스튜디오 ▲가상현실(VR) 체험 ▲팝업 시네마 ▲시네마 라이브러리 ▲시네마 스트리밍 존 등을 조성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전남도, 차기 금고지정 절차 돌입

10월 중 금고 지정, 11월 약정 체결

전남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제 1급고인 농협중앙회와 2급고인 광주은행의 금고 유치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추가로 다른 금융권의 가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누리집 등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이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갖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제안서 접수에 들어간다.

금고 신청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남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1·2급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제1급고

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7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제2급고로 지정한다.

전남도는 제안서 접수 후 오는 10월 중 금고지정심의위를 거쳐 금고 지정하고 11월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심의·평가 항목은 '전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융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참여를 희망한 금융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남도 세정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전남도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지정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순천에 새 동지

확대개편된 한국철도공사(KORAIL) 광주전남본부가 순천에 동지를 둔다.

전남도는 한국철도공사가 현장조직 최적화를 위해 광주와 전남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확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비롯해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광주전남본부를 순천에 있는 전남본부로 통합한 것이다.

광주전남본부는 경영인사처 등 7개 부서이며, 기존 전남본부 인력 964명에 광주본부 918명과 호남차량관리단 364명 등을 더해 총 22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상주만풍배

상주시 '만풍 배' 해외수출 순풍

상주에서 생산되는 '만풍 배'가 해외에서 큰 인기다.

7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1997년 개발한 만풍배는 '신고' 품종 일변도의 재배로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청배로 변신해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호주와 베트남에 16t을 수출했다. 올해도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캐나다 수출 시장도 개척한 것은 물론 생산량도 30t을 늘려 해외 수출 물량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